

분과 2

디지털 리터러시와 표현교육

사회 : 김윤주(한성대학교)

번역기와 생성형AI 시대의 유학생 글쓰기

-학부 유학생 교양 강좌를 대상으로-

최유숙(중앙대학교)

1. 들어가는 글

이 연구는 교양 강좌를 수강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번역기와 생성형AI¹⁾을 활용한 글쓰기를 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교수자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부 유학생에게 글쓰기는 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항시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나 유학생의 상당수는 충분한 쓰기 역량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다.²⁾ 유학생이 한국의 대학에 재학하는 목적이 한국어 학습이 아니라 ‘학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업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유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작은 방편으로 번역기³⁾를 포함한 인공지능⁴⁾ 도구들을 활용해 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모어로 쓸 수 있는 것을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쓸 수 없다면 이것은 학생에게는 차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벽한 이중언어 구사자가 아니라면 글쓰기를 위한 사고나 표현은 모어가 우선일 수밖에 없다. 모어로 작성하고 한국어로 번역한 후 생성형AI로 사후수정한다면 이 글을 부정행위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해당 강의가 한국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아닌 한 부정행위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는 한국어로 초고를 쓰고 영어로 번역한 연구자의 논문을 부정행위로 간주하지 않는 것과 같다.⁵⁾

-
- 1) 여기에서는 오픈AI 사의 챗GPT가 주로 사용된다. 번역하는 기계를 ‘번역기’라고 한다면 글을 만들어 내는 기계는 ‘작문기’라고 부를 것을 제안하는 바이나 현재 ‘생성형AI’로 통용되므로 이를 사용한다. 번역하는 기계와 작문하는 기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유학생의 글쓰기를 돕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 2) 학문목적 한국어 쓰기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있는 강란숙(2022:232)에서는 학문목적 쓰기 교육이 ‘쓰기에 관한 역량’을 발전시켜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글쓰기가 학업의 주요한 도구라는 점에서 타당한 관점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는 ‘한국어’보다는 ‘글쓰기’에 방점이 있으므로 한국어 교육에서의 쓰기 교육에 초점을 둔 논의는 아님을 밝혀 둔다.
 - 3) 기계번역 기술의 역사와 현재를 진단하고 있는 황요한·이제영·신동진(2020)에서는 1980년대까지는 규칙 기반, 1990년대부터 말뭉치 기반(예시 기반, 통계 기반), 현재는 인공지능망 기반 번역기가 사용되고 있는 역사를 개괄하고, 구글, 네이버, 카카오, 3사의 온라인 기계번역기의 한영 번역 결과물을 비교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파파고가 성능이 앞서나 전문용어 등 고난도 어휘는 구글이 뛰어나다고 한다.
 - 4) 관점에 따라서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인공지능 번역’ ‘생성형 인공지능’ 등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대로 사용한다. 영화 ‘Arrival’의 원작 소설로 유명한 SF작가 테드창은 2023년 6월 파이낸셜타임즈와의 한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비판하며 이를 ‘applied statistics’(응용통계)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지능(intelligence)’이라는 표현을 문제로 보는 것인데, 이는 거대언어모델(LLM)의 위험성을 다룬 논문 "On the Dangers of Stochastic Parrots: Can Language Models Be Too Big?"으로 널리 알려진 ‘확률론적 앵무새(Stochastic Parrots)’라는 개념과도 상통한다고 하겠다. 확률론적 정보에 따라 뿐 생성된 언어를 이해하는 지능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https://dl.acm.org/doi/10.1145/3442188.3445922>

2022년 칸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은 ‘번역기 시대의 사랑’이라 부를 만한 영화이다. 주인공 여성의 다음과 같은 문장을 통역기 앱을 통해 듣고 주인공 남성은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문장의 ‘단일한’은 ‘유일한’이, ‘심장’은 ‘마음’이 한국어 화자의 직관에 부합하는 말이다. 희망적인 것은 그럼에도 이 소통이 실패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화 속 이야기이다.

“제 얘기 듣고 물어준 단일한 한국 사람이예요.”

“나에게 선물이 하고 싶다면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현실로 돌아오면 유학생의 글쓰기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심심찮게 발견된다. 번역 후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검토 가능한 한국어 역량의 부재가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 영화가 아니므로 좀 더 정확한 소통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교수자의 개입이 가장 흔한 일이겠으나 우리는 여기서 생성형AI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번역기를 활용한 외국어(주로 영어) 쓰기 연구를 통해 번역기 활용의 효용을 보이고,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AI가 번역된 글의 사후수정에 유용함을 보이고자 한다. 이후 교양 강좌의 글쓰기에서 이를 적용한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유학생의 글쓰기를 위한 교수자의 역할을 제안해 볼 것이다.

2. 글쓰기 도구로서의 번역기와 생성형AI

2.1. 영어와 한국어 쓰기와 번역기-왜 번역기인가?

번역기를 다룬 연구 중 본 연구와 관련된 것은 영어 쓰기 연구와 번역 전후의 에디팅을 다룬 번역학의 연구이다. 번역기를 활용한 영어 쓰기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 외에 중등교육 과정에서의 연구도 다수 진행되나 이것은 외국어 능력이 높지 않을수록 번역기를 통한 쓰기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김채은(2023), 조인희(2021/2018), 정남숙(2021), 김경란(2020), 이상민(2020/2019) 등이 있다.

먼저 김채은(2020)은 영어교육과 학생, 즉 예비교사들 대상의 연구로서 현재 번역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그럴할 것이라는 결과가 주목할 만하다. 예비교사라는 정체성에 맞게 번역기의 부정적 측면도 인지하고 있으며 번역기의 오류에 대한 학습자 판단을 이끄는 교사의 역할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조인희(2018)에서는 모어를 활용한 기계번역으로 영어 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영어 쓰기 능력도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글쓰기가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학생들의 성취감과 자신감도 높인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 연구는 영어가 부족하더라도 지적 능력에 맞는 쓰기 활동을 하도록 돕는 출발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인 조인희(2021)은 번역기를 통한 영작문이 번역기의 도움 없는 영작문과 비교했을 때만이 아니라 학습자의 보편적인 영어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정남숙(2021), 김경란(2020), 이상민(2019) 등에서는 특히 영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학습자에게 있어서의 번역기 활용의 효과와 한계를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번역기를 통해 영어 능력이 낮더라도 긍정적인

5) 박남기(2023:35)에서도 “챗GPT에게 의존하여 글을 쓰고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지적 역량이 감퇴하지 않게 하는 보완책을 찾는 것”을 AI 시대 교양교육이 안게 된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어 유창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학생의 모어를 활용하여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많은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학습효과를 끌어낸 것으로 보이나 번역의 결과에 대한 검토 능력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함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번역기 활용 결과에 새로운 도구와 교수자의 개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목표어를 영어로 하는 연구가 다수이기는 하나 근년에는 한국어를 목표어로 하는 기계번역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찬규(2018), 임형재(2018)의 거시적 조망에 이어 공태수·백재파(2021 ㄱ/ㄴ) 등은 기계번역 한국어 교육의 실제적 연구라 할 만하다. 박수진(2023)은 기계번역을 활용한 수업에서의 학습자 인식을 고찰하고 기계번역을 활용한 쓰기 수업의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서 기계번역 오류를 통하여 모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발견하도록 함으로써 쓰기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소현(2021)은 중한 기계번역 결과에 대한 포스트에디팅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여기에서는 ‘기계번역 문식성’⁶⁾이라는 개념이 연구의 기초가 되고 있다. 한설옥(2020)은 세 유형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의 결과물을 어휘, 문법, 화용의 세 층위로 분석하여 교육적 활용점을 모색한 연구로서 의의가 크다.⁷⁾

이상으로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기계번역 연구를 통해 쓰기에서의 기계번역의 효용을 알아볼 수 있었다. 언어 능력이 낮은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기계번역을 통해 쓰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이것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라·포스트 에디팅이 요구된다는 것, 효과적인 프라·포스트에디팅을 위해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알 수 있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교수자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혹은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성형AI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생성형AI와 글쓰기-인간 글쓰기에서 AI는 무엇을 할까?

말 그대로 매일매일 팔목상대하게 만드는 생성형AI는 자고 나면 새로운 소식과 연구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GPT-4가 논문 리뷰를 한 연구가 발표되어 놀라움을 안겨주기도 한다(Weixin Liang et al, 2023). 이 연구에 따르면 GPT-4 시스템에서 생성된 피드백에 대해서 사용자의 절반 이상(57.4%)이 GPT-4에서 생성된 피드백을 유용하거나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했으며 82.4%가 적어도 일부 인간 리뷰어의 피드백보다 더 유익하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연구 소식은 제대로 된 판단이 언어학자들에서조차 38.9%에 불과할 정도로 AI와 인간의 글쓰기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J. Elliott Casal & Matt Kessler, 2023).

이런 상황이라면 인간의 글쓰기라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하며 그럴 만한 의미가 있는가를 근본에서부터 캐묻지 않을 수 없다. 교양교육, 국어교육의 연구들이 주로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관련한 연구들로 박남기(2023), 김종규·원만희(2021) 등과 강동훈(2023), 오규설(2023) 노대원·홍미선(2023), 장성민(2023 ㄱ, ㄴ), 권태현(2023) 등이 있다. 어떻게든 인간의 글쓰기에 의미를 부여하며 글쓰기를 인간만의 고유한 것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주민재(2023), 이진영(2021), 김수이(2019) 등은 인공지능에게 인간 글쓰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처럼

6) Bowker & Ciro(2019)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에 대한 한 서평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요약하자면, 이 책은 국제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MT(기계번역) 기술의 잠재력을 탐구함으로써 글로벌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에 귀중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 친화적인 방식으로 학술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번역 가능한 형식으로 초록을 구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MT 기술은 아직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연구에 대한 보다 공평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MT 기술 교육이 필요합니다.”

-Krystyna K. Matusiak(<https://asistdl.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asi.24325>)

서평의 밑줄 부분(필자)이 기계번역을 유학생 글쓰기에 활용하고자 하는 본고의 목적과 정확히 부합한다. 영어가 모어가 아니면서 영어로 논문을 써야 하는 ‘국제학자’의 처지와 한국 대학에서 한국어로 글을 써야 하는 유학생의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참고로 여기에 제시된 번역 역시 기계번역의 결과물이다.

7) 가장 최근의 연구인 이창수(2023)에서는 챗GPT 출현 이후 기계 번역과 인간 번역 간의 번역 문체 차이 변화를 살피고 있다. 챗GPT와 기존 번역기 간에 문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을 밝히고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챗GPT의 문어체 편향성에서 찾고 있다.

보이기도 한다.⁸⁾ 그러나 이는 간단치 않은 문제임에 틀림없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글쓰기 교양 강좌, 혹은 한국어 글쓰기 강좌, 영어 글쓰기 강좌 등에서는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실제 ‘글쓰기’를 교수-학습한 연구들도 있다. 김명희(2023)는 15주 동안 유학생을 대상으로 생성형AI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 진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지영(2023)은 ChatGPT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쓰기 사례의 효과를 살피고 이러한 경험이 자기주도적인 학습 경험을 확장하는 데 유의미하다고 본 연구이다. 오선경(2023) 역시 대학 교양교육에서 ChatGPT를 활용하여 에세이 쓰기 수업을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아이디어 생성과 정보 수집을 위해 챗GPT를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광(2023)은 영어 글쓰기에서 참가자의 76.2%가 ChatGPT의 피드백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고 밝힌바 이것은 ChatGP가 쓰기의 3단계 중 3단계인 수정에 가장 유용함을 보여준다.

김성우(2023:14)에 따르면 챗GPT는 자신을 ‘필자’가 아닌 ‘쓰기 보조 도구 (writing assistant)’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챗GPT야, 너는 쓰는 존재(writer)니?”라는 물음에 대한 답인 듯한데, 이러한 챗GPT의 인식에 걸맞게 우리는 쓰기의 보조도구로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챗GPT에게 저자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면서 저자인 인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관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간이 글을 쓰고, 인공지능은 사후수정을 하는 정도가 가장 적절한 챗GPT 활용이 아닌가 한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관점도 존재하는데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글을 ‘생성’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글의 생성을 이끄는 것이 명령어를 입력하는 나라면 그 결과로 생성된 글은 나의 글인가 하는 물음에 선뜻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 친구에게 시켜 글을 작성하게 하더라도 그 글이 나의 글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은 인간의 사고를 담아내는 것이라는 고전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이 ‘생성’한 글을 나의 글로 주장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로 보인다. 이 진영(2021:577)에서는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공동창조자이자 참여자로서의 인간을 역설하고 있으나 과연 우리가 인공지능과 공저자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글쓰기에서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수정을 돕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하고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다음에서는 학생들이 모어로 원문을 작성한 후, 기계번역, 수정을 거친 글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의 교수자의 역할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물론 교수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미 기계번역의 포스트에디팅에서도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생성형AI가 수행한 사후수정일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⁹⁾

3. 번역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글쓰기 사례

3.1. 자기소개 글쓰기

이 연구의 학생들은 한국어 어문규범 과목을 선택교양으로 수강하는 학부 유학생이다.¹⁰⁾ 학기초 으레 작성하는 자기소개 글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이 글을 ‘1) 모어로 작성, 2) 번역기로 번역, 3) 생성형 AI로 수정’의 단계로 진행하고 전체

8) 그러나 여기에서 이주연(2023)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될 수 없음을 보이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법적으로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결정적인 차이로서 이것은 글쓰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9) 김명희(2023)에서는 15주에 걸친 챗GPT를 활용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의 글쓰기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지향은 일반적인 한국어 글쓰기 교육과는 거리가 있음을 밝혀 둔다. 이 때문에 글쓰기에 오랜 시간을 쓸 수는 없어 2회만 진행하였고, 소요 시간은 총 2시간 정도이다. 이런 한계는 추후 보완할 계획이다.

10) 한국어 어문규범을 내용으로 하며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로마자표기법 등의 규정을 유학생 대상의 과목이나 내국인 학생도 한두 명 있다. 국어국문학과 기초과목 중 하나인 정서법의 유학생 버전 정도로 간주할 수 있다.

과정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4가지를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3)의 경우는 (1), (2)를 순차적으로 제출한 학생도 있고, 별도로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 1) 모어(母語)로 한 단락 정도의 자기소개 글을 씁니다.
 - ① 국적과 한국어 능력(토픽 기준)
 - ② 자신의 중요한 관심
 - ③ 이 수업을 듣는 이유
 - ④ 수업에 바라는 점

- 2) 모어로 쓴 글을 한국어로 번역합니다.(네이버, 카카오, 구글, 딥엘 등의 번역기) 어떤 번역기를 사용했는지도 적습니다.

- 3) 생성인공지능(챗GPT, 뮌타이, 클로바X 등)에 접속합니다. 2의 글을 입력창에 넣고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 > 한국어의 문법과 표현에 맞게 수정해 주세요(1).
 - > 대학 강의에서 하는 자기소개 스타일로 바꿔 주세요(2).

〈표 1〉 자기소개 글쓰기의 과정

이 과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 것은 생성형 AI가 수행한 사후편집(Post-Editing)의 결과이다. 다음에서 예로 보이는 것은 중국 국적 학생의 글이다. 이 학생은 현재 토픽 4급 정도의 한국어 능력으로, 수강생 중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낮은 그룹에 속한다.¹¹⁾ 물론 이 정도 수준의 글은 한국어로도 큰 문제 없이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선 모어로 쓰고 번역기와 생성형AI를 거친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¹²⁾

1) 모어로 작성

大家好，我是来自中国山东的留学生，我的韩语能力是topik4级。我平常对于摄影比较关心，我喜欢把各种美好的瞬间记录下来。我选择这门课是因为想更加了解韩国文化，并且更细致的学习韩语。我希望我上完这门课之后我可以学习到很多新的韩语知识，因为我认为过程比结果更重要。最后我还希望能跟同学以共同学习讨论为桥梁，成为朋友。

2) 번역기로 번역(구글 번역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국 산둥성에서 온 유학생입니다.¹³⁾ 한국어 능력은 TOPIK 4급입니다. 저는 평소 사진에 관심이 많으며 온갖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고, 한국어를 더 자세히 배우고 싶어서 이 강좌를 선택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마친 후에 새

11) 수강 중인 학생들의 1/3 정도는 topik 5,6급이고 1/3 정도는 4급 수준이다. 한국어 능력에 대한 소개를 적지 않은 학생도 1/3 정도이나 입학 기준이 4급이므로 낮은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2) 번역기 사용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은 네이버의 '파파고'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파파고를 사용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 국가의 언어가 없는 경우(몽골, 수단 등)였다.

13) 챗GPT는 이를 '국제학생'으로 번역하는데, 영어에서는 유학생을 'international student'로 부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흔히 '외국인 유학생' 등의 표현을 쓰는데, 영어권에서는 '외국인'을 차별적 요소가 있는 단어로 보는 만큼 '국제학생'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로운 한국어 지식을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학습과 토론을 교량으로 삼아 반 친구들과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¹⁴⁾

3) 생성형 AI로 수정(챗GPT)¹⁵⁾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국 산둥성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TOPIK 4급의 한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진 촬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고 기록하는 것은 제 삶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이 강좌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와 함께 한국어 실력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결과물보다는 학습 과정 자체가 저에게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한국어 지식을 적극적으로 습득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동 학습과 토론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 배우며, 반 친구들과 친분을 쌓고 싶습니다.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의 구글 번역은 대체로 수용할 만한 결과로 보인다. 문제는 2)의 마지막 문장인데 이것을 3)에서의 생성형AI는 한국어 화자도 충분히 수용할 만하도록 수정하였다. 일반적인 한국어 화자라면 2)의 맥락에서 ‘교량’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반 친구들과 친구가’처럼 잉여적인 표현도 쓰지 않을 것이다. 또한 3)의 수정 글은 ‘-고자 하다’라는 표현의 사용으로 매우 문어적으로 느껴진다. ‘대학 강의에서의 자기소개’라는 명령어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반대의 명령어를 입력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¹⁶⁾ 이처럼 생성형 AI는 적절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 번역 결과의 사후수정을 위한 도구로도 매우 적절해 보인다.

이외에도 몽골 국적 학생의 글에서 발견한 다음과 같은 문장은 특기할 만하다. 이 수업에 대한 기대를 적는 문장을 번역기(구글)는 “이 에피소드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로 번역하였고, 생성형AI(챗GPT)는 “이번 에피소드에서 더 이상 원할 게 없습니다.”로 수정하였다. 보통의 한국어 화자라면 “이 수업에서 특별히 바라는 점은 없습니다.” 정도로 수정할 수 있을 문장이다. 반면에 수단 국적 학생의 글은 번역기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은 ○○○입니다.”로 번역한 것을 생성형 AI는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로 일반적인 화법으로 수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구글은 직역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박은정(2023:314~316)에서는 한국어 번역 전공 고급학습자들의 비모국어성을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데, 생성형 AI의 사후수정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문제로 제시된 다음 문장의 사후수정 결과를 보인다. 이들 외에도 많은 사례가 제시되어 있으나 지면의 제약으로 다음 두 사례만 보이기로 한다.

14) 파파고 번역은 이 문장을 “저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을 가교로 삼아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로 챗GPT는 “상호 학습과 토론을 다리 삼아 동창들과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로 번역하는데 모두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15) 학생들이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명령어(프롬프트)는 결과 비교를 위해 동일하게 하였다. 더 상세하고 다양한 명령어 입력이 가능하나 글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간단히 하였다.

16) 참고로 구어체로 수정해 달라는 명령어 입력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산둥성에서 온 국제 학생이에요. TOPIK 4급 한국어 능력이 있고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해요. 예쁜 순간을 찍어서 기록하는 건 나에게 정말 큰 즐거움이죠. 이 강좌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한국어 실력도 더 높이고 싶어서예요. 결과보다는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나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한국어 지식을 적극적으로 얻어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같이 공부하고 토론을 통해 친구들과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다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 기회가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 ① ‘길끼빠빠’라는 말이 있듯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해서 유난한 태도를 보여야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된다.
- ② 또한 Leech(1983)나 Thomas(1995)처럼 대화 4대 격률에 새로운 개념인 공손 격률을 넣고 그것을 더 세부화하는 등 여러 가지 의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문장을 “잘못 쓰인 단어가 있다면 고쳐 달라”는 명령어와 함께 입력하면 먼저 ①의 문장에 대해서는 “‘유난한’이라는 단어를 ‘유통성 있는’으로 바꾸면 문장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논문이 제시한 적절한 단어는 ‘유연한’이긴 하나 ‘유통성 있는’도 충분히 수용될 만하다. ②의 문장에 대해서는 “Leech(1983)나 Thomas(1995)처럼 대화의 4대 원칙에 새로운 개념인 ‘공손 원칙’을 추가하고 그것을 더 세부화하는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하는데 문제가 된 ‘의논’을 ‘논의’로 잘 수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격률’이 ‘원칙’으로 수정되었는데, ‘격률’이라는 단어가 ‘원칙’에 비하면 매우 사용빈도가 낮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듯 생성형AI는 적절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수용할 만한 사후수정(포스트-에디팅)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어 모어 화자가 아닌 경우 이상에서 다룬 수정의 대상들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여기에 교수자의 개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¹⁷⁾ 교수자가 곧바로 문제와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사후수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2. 주장하는 글쓰기

자기소개 글에 이어 주장하는 글쓰기를 추가로 시도해 보았다. 대학에서 요구되는 글은 대체로 자신의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논증 구조의 글이다. 글쓰기 강좌가 아니므로 완결된 한 편의 글을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한 단락 정도로 짧은 글을 쓰게 하였다. 앞서 자기소개 글을 쓰면서 번역기와 생성형AI를 활용해 본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방식의 글쓰기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해 보는 것이다. 번역기와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쓰는 것과 더불어 이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쓰도록 하였다.

17) 이런 이유로 번역학에서의 포스트-에디팅 연구에서는 외국어 능력이 낮은 경우 포스트-에디팅이 아니라 적절한 번역문이 도출되도록 프리-에디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국 대학의 유학생으로서, 번역기와 생성형AI(챗GPT, 루튼, 클로버X 등)를 대학에서의 글쓰기(보고서나 다른 과제 등)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씁니다.

가. (찬성 의견)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혹은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반대 의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혹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글쓰기 유의사항

다음 1-5의 순서로 진행하고 1-5를 모두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 1) 위의 '가'와 '나' 중 자신의 주장에 해당하는 글을 모어로 작성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지난주의 경험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 2) 한국어 번역기로 번역하기(파파고, 구글 등 사용 번역기 적기)
- 3) 번역기로 번역한 2의 결과를 자신이 직접 수정하기
- 4) 번역기로 번역한 2의 결과를 생성형AI로 수정하기(사용한 AI 기록하기)
→ 한국의 대학 보고서의 문장으로 수정해 주세요.
→ 한국어 문법과 표현에 맞게 수정해 주세요.
- 5) 3, 4를 종합하여 자신이 최종 수정하기

〈표 2〉 주장하는 글쓰기의 과정

다음은 대만 국적 학생의 글이다. 학생 모어 원문의 번역기 결과만으로도 큰 수정사항이 보이지 않는 글이다. 다만 실습의 순서에 따라 한두 가지 수정된 것이 보인다.

1) 모어로 쓴 글: 찬성 의견

我個人贊成學生們使用翻譯工具或生產型AI來寫大學的作業。因為作業本身的目的並不是你那國語言學的如何，而是你個人對作業主題所擁有的想法比較重要。若是因為語言的隔閡而造成作業成績不理想的話，我個人覺得會挺冤枉的。若是能適當的運用翻譯工具或生產型AI來表達自己的想法的話，會是個很好的經驗，人就是要善用工具。

2) 한국어로 번역(구글 번역)

저는 학생들이 번역 도구나 생산적인 AI를 사용하여 대학 과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과제 자체의 목적은 해당 언어를 얼마나 잘 배우는가가 아니라 과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어장벽으로 인해 숙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번역 도구나 제작 AI를 적절히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2)의 구글 번역에서는 중국어 원문에 따라 '생산적인 AI'로 번역되었다. '개인적으로 지원합니다'라는 표현은 이 견해를 '지지한다'는 표현이 잘못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AI는 '생산적인 AI'로도, '제작 AI'로도 번역되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 학생은 다음 3)과 같이 스스로 수정을 하였다. 또한 구글 번역을 통해서 문장부호는 수정되지 않아서 마침표 사이의 띄어쓰기가 없는 부분이 그대로 있음을 볼 수 있다.

3) 학생의 수정

저는 학생들이 번역기나 생산형 AI를 사용해서 대학 과제를 작성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과제하는 그 자체의 목적은 해당 언어를 얼마나 잘 배웠는지가 아니라 과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어장벽으로 인해 과제 결과가 좋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번역기나 생산형 AI를 적절히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도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구글 번역에서는 ‘번역 도구나 생산적인 AI’로 번역한 것을 ‘번역기나 생산형 AI’로 수정하였고, 이 주제에 대한 주장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잘 드러내었다. ‘숙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을 ‘과제 결과가 좋지 않다면’으로 수정한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생성형 AI에 대한 지칭이 ‘생산형 AI’인 것은 모어의 영향으로 수정되지 않았다. 글을 작성한 학생이 생성형AI를 활용하여 2)의 번역을 수정한 결과는 다음 4)와 같다.

4) 생성형AI 수정(클로바X)

저는 학생들이 번역 도구와 생산적인 AI를 활용하여 대학 과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과제의 목적은 해당 언어를 얼마나 잘 습득했는지가 아니라,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과제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이는 개인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번역 도구와 생산적인 AI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클로바X는 23년 8월 출시된 한국형 AI로서 출시 전 큰 기대를 모았으나 기대만큼의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번역기나 생성형 AI의 종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서 이 학생은 본인에게 접근이 용이했던 클로바X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4)는 2)의 번역 결과를 클로바X가 수정한 것인데 ‘지원합니다’가 ‘돕고 있습니다’로, ‘잘 배우는가가 아니라’가 ‘잘 습득했는지가 아니라’로 어종이 서로 교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장 구조 면에서는 4)의 두 번째 문장은 2)의 두 번째 문장보다 낮다고 판단된다. ‘생산적인 AI’라는 한국어 표현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수정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1)~4)의 과정을 거친 학생의 최종 선택이 다음 5)의 결과이다. 오타나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문법 오류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두 번째 문장의 경우는 앞선 검토를 잘 종합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 면에서 이 글을 쓴 학생의 주장은 번역기와 생성형 AI 사용 글쓰기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생산형AI’는 중국어가 아니라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수정해야 한다.

5) 최종 결과

저는 학생들이 번역기나 생산형 AI를 활용하여 대학 과제를 작성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과제의 목적은 해당 언어를 얼마나 잘 배웠는지가 아니라,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과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개인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번역기나 생산형 AI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상을 통해 번역기와 생성형 AI를 사용한 글쓰기를 살펴본바 학생들의 견해는 80% 이상이 찬성하는 주장으로, 그 이유의 핵심은 대체로 글쓰기의 내용과 주제에 집중할 수 있고 시간적 효율성도 크다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을 모국어로 생각하고 번역기를 사용하여 전달할 수도 있지만, 배우고 있는 언어인 한국어로 생각한 후 문법적으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한국어 능력을 우려하는 반론까지 고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용 여부를 논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사용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정 명령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다양한 생성형 AI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주장한 학생도 있었다.

반면 20% 정도의 학생은 반대 주장의 글을 제출하였는데 대체로 번역기 오역의 문제나 번역기에 과의존하는 경우의 한국어 능력 문제를 이유로 제시하고, AI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도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요컨대 번역기와 생성형AI는 도구인 만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를 대학의 강의에서 활용하기로 한다면 사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학생들이 우려하는 바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리라 생각된다.

4. 도구 활용의 제한점과 교수자의 역할

자기소개 글과 주장하는 글을 학생의 모어로 작성하고 번역기로 번역, 이후 생성형AI를 통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 대체로 한국어 고급 능력을 갖춘 학생들은 번역문을 스스로 수정하는 노력을 보인 반면 중급 수준의 학생들은 생성형 AI의 사후수정 결과에 대한 고민 없이 그대로 제출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학생의 최종 검토가 있었다고 해도 위의 5)에서 보듯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번역기의 결과와 사후수정 결과를 생성형AI를 활용하여 비교 검토하고,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를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그 한 예로서 위의 5)의 결과를 다시 한번 생성형AI에 입력하고 한국어 문법에 맞게 수정하도록 명령하고, 수정된 부분을 알려달라고 입력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 생성형AI는 <그림 1>에서 보듯 한국형을 표방한 생성형AI답게 한국어 문법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였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에서의 보조용언을 ‘못하다면’으로 수정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그림 2>의 챗GPT에서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 문법 오류를 수정하는 데는 한국형 생성형AI가 나올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저는 학생들이 번역기나 생산형 AI를 활용하여 대학 과제를 작성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과제의 목적은 해당 언어를 얼마나 잘 배웠는지가 아니라,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과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개인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번역기나 생산형 AI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위의 글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는 '하여'의 준말인데, 이 경우에는 '하여'로 쓰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못하다면'은 '하다'의 어간 '하-'에 '-지'가 붙은 형태이므로, '못하다'의 어간 '못하-'에는 '-지'를 붙일 수 없고 '면'을 붙여야 합니다.

<그림 1> 클로바X의 수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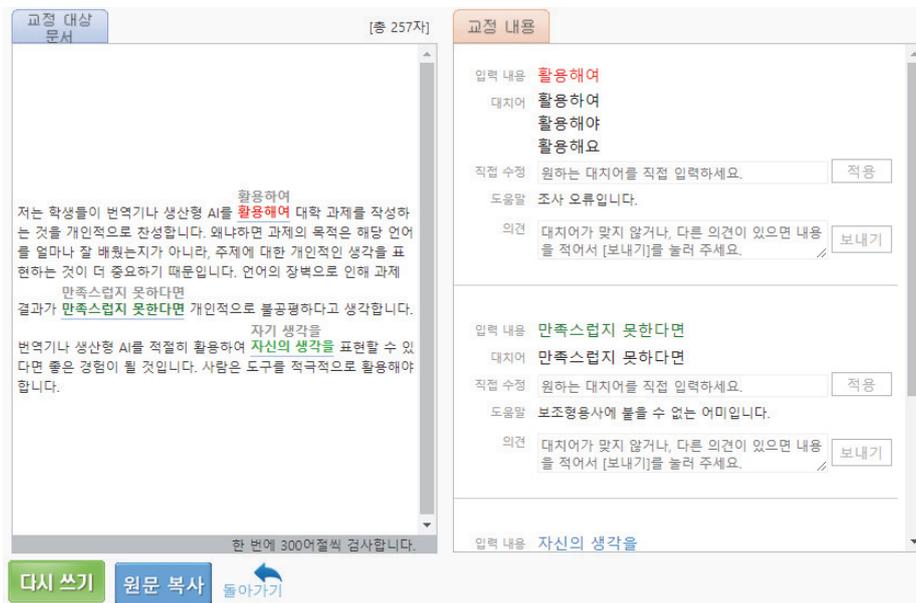
Y 다음 글에서 한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줘: 저는 학생들이 번역기나 생산형 AI를 활용하여 대학 과제를 작성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과제의 목적은 해당 언어를 얼마나 잘 배웠는지가 아니라,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 문입니다.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과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개인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번역기나 생산형 AI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면 좋은 경험 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1. "활용하여"는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올바른 표현은 "활용해"입니다.
2.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는 문법적으로는 틀린 부분이 없지만,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 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국어 문법에 맞게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림2〉 챗GPT의 수정 결과

이외에도 학생들 중에는 모어에서 번역 후 번역기의 결과를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를 사용하여 사후수정하고 제출 한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는 클로바X가 수정한 보조용언 오류를 수정하지 못하였다. 반면 <부산 대 맞춤법 검사기>는 이를 정확히 수정하였다. 이는 김영일·김완섭(2021)에서의 정확성 검토 결과가 틀리지 않음을 보여 준다.¹⁸⁾ 그렇다면 유학생들에게도 생성형AI 외의 성능 좋은 맞춤법 검사 도구 소개도 필요할 것이다.¹⁹⁾ 번역기를 통해 모 어 글을 번역한 후 맞춤법 검사기를 통해 문법과 표현의 수정을 거치는 것도 글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부산대학교의 맞춤법 검사기는 <그림 3>에서 보듯 오류와 교정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이 제공되어 유익하기도 하 다. 단순히 교정된 결과만 표시되는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에 비해 정확성과 정보성 또한 높은 것이다.



〈그림 3〉 부산대 검사기의 수정 결과

18) 김영일·김완섭(2021)에서는 1) 맞춤법 검사기/띄어쓰기(2013, MPsunny), 2)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1992, 부산대 인공지능연구실, (주)나라인포테크), 3)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2013, 네이버(주)), 4) DAUM 맞춤법 검사기(2014, (주)카카오) 등 네 가지 맞춤법 도구의 정확성을 검토한바 2)가 가장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 이 도구는 원래 한 학기 어문규범 강의의 후반부에 외래어, 로마자 등의 변환기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강의 초반에 도구 들을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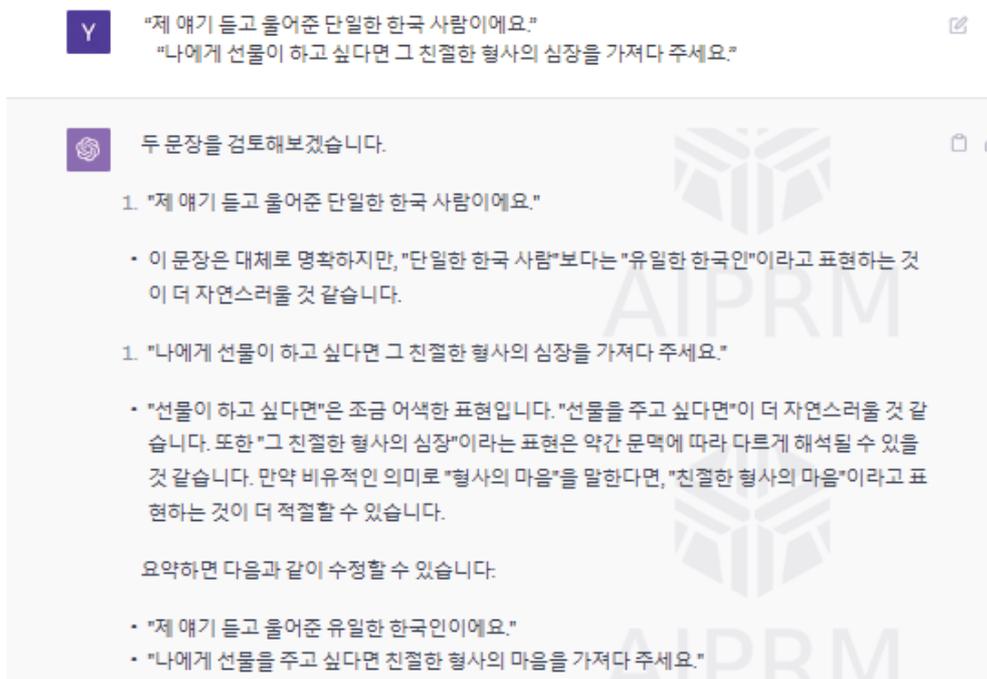
이상에서 보듯 번역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사후수정을 한 경우에도 여전히 한국어 맞춤법, 문법 오류는 남을 수 있음을 보았다. 그래도 번역기와 생성형AI에 이어 맞춤법 검사기까지 활용한다면 학생의 모어로 작성한 글이라도 한국어로 읽기에 큰 무리가 없는 글이 되리라 생각한다. 여기까지 학생들이 잘 따라왔다면 이제는 교수자가 할 일은 없을 듯도 하나 아마도 한국어 모어 화자의 직관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남을 것이다.

다시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돌아와서 다음과 같은 대사를 보자. 두 문장의 밑줄 친 단어는 맥락상 적절하지 않음을 한국어 모어 화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제 얘기 듣고 올려준 단일한 한국 사람이예요.”

“나에게 선물이 하고 싶다면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이 대사는 영화에서 주인공의 중국어 발화를 한국어 통역앱으로 변환한 대사이다. 이렇게 보면 번역기를 사용하는 경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어로 번역된 글에서 모어 화자에게 어색함이 느껴지는 이러한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교수자의 역할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부분을 생성형AI 챗GPT에게 물어보면 다음의 <그림 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확률론적으로 계산된 자동완성 방식의 생성형 AI라는 점에서 챗GPT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적절한 도구일 수 있다.



<그림 4> 챗GPT의 검토 결과

<그림 4>와 같이 챗GPT는 이 문장들을 한국어 화자의 직관으로 수용 가능한 상태로 수정을 제안한다. 맞춤법이나 한국어 문법상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네이버나 부산대의 맞춤법 도구 모두 이들 문장의 어색함까지 해결하지는 못하였는데, 챗GPT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후 번역 글쓰기의 사후수정 도구로서의 성능을 기대하게 된다. 물론 챗GPT는 번역기로도 사용 가능하며 번역의 품질을 구글 번역과 비교할 것을 요청했을 때 “일반적인 문장이나 단어의 번역에서는 구글 번역도 충분히 유용할 수 있지만, 문맥이나 뉘앙스가 중요한 경우에는 저의 번역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을 하기도 한다.²⁰⁾

4. 나오는 글

이상으로 학부 유학생 글쓰기에서 번역기와 생성형AI를 활용 사례를 통해 이들 도구가 유학생 글쓰기의 효율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 한국 대학의 유학생 글쓰기에서 이런 도구들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 도구들이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글쓰기의 제약을 뛰어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미 학생들은 여러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수자의 역할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한국어 번역된 유학생 글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로서의 발견과 맞춤법 검사 도구 등의 필요성을 보였다. 이는 번역에서의 포스트-에디팅 역할을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AI에 맡긴 것인데, 이것은 기대 이상의 역할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는 기술 덕분에 문학 텍스트가 아닌 실용적 수준의 텍스트는 이런 도구들만으로도 큰 문제 없게 되었다.²¹⁾ 그러나 번역기가 있다고 해서 전문 번역사가 무용한 것은 아니듯 한국어 글쓰기 교수자 또한 앞으로 더 큰 역할이 요구될 것이다. 가능한 도구들을 심분 활용하여 효율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연구가 시작은 될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²²⁾

20) “구글 번역은 기계 번역이기 때문에 문장의 문맥이나 뉘앙스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단어나 구문의 번역에는 매우 뛰어나며,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문장의 문맥이나 뉘앙스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특히 문화적 또는 언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더 정확한 번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문장이나 단어의 번역에서는 구글 번역도 충분히 유용할 수 있지만, 문맥이나 뉘앙스가 중요한 경우에는 저의 번역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교를 원하신다면, 구글 번역을 사용하여 같은 문장을 번역한 후 두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번역의 품질 차이를 더 쉽게 평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1) 이찬규(2018:163)에서는 2038년 경이면 인공지능이 전문가 수준의 통번역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때는 소수만이 전문적인 외국어 학습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을 듯하다.

22) 이 연구가 최종적으로 목표한 글은 학생들의 보고서이다. 다만 아직 중간시험 대체 과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여서 발표문에 포함되지 못하였는데, 추후 제출되면 학술대회에서는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강동훈(2023), 챗지피티(ChatGPT)의 등장과 국어교육의 대응, 국어문학 82
- 강란숙(2022), 학문목적 한국어 쓰기교육 연구동향 분석, 리터러시연구 13(6)
- 공태수·백재파(2021), 기계번역 활용 한국어 작문 교육의 효과 -MTPE 작문 교수법 개발과 적용, 한국어교육 32(2)
- 공태수·백재파(2021), 한국어 학습자의 기계번역 활용 실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5)
- 권태현(2023), 인공지능 시대의 글쓰기와 작문 교육의 방향 탐색-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83
- 김경란(2020), 대학 L2 글쓰기에서 번역기 사용은 필요한가?-타당성에 대한 초급반 학습자의 인식, 디지털융복합연구, 18(6)
- 김명희(2023), 챗GPT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안 연구, 한국문예창작 22(2)
- 김민수(2023), 디지털 · AI 시대 문식성 교육이 가지는 의미, 교양교육연구 17(2)
- 김민영(2023), 한국어 번역 교육을 위한 번역 오류 유형화 고찰, 한국언어문화학 20(2)
- 김성우(2023), 글쓰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쟁점: 저자됨, 정체성, 글쓰기의 윤리, 신문과방송 2023년 2월호
- 김성우(2023), 생성형 AI의 부상과 리터러시 생태계의 변동: 변화의 지형과 비판적 메타-리터러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114(23년 여름호)
- 김수이(2023),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글쓰기는 계속 가능한가, 리터러시연구 10(3)
- 김종규·원만희(2021), 인공지능 글쓰기와 리터러시에 대한 실존적 고찰, 동서철학연구 99
- 김지은(202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교육 중 기계번역 활용 고찰-외국인학생 대상 설문조사 기반, T&I REVIEW, 13(1)
- 김혜숙·문채영·김나영(2023), AI 기계 번역기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 외국학연구 63
- 노대원·홍미선(2023), ChatGPT 글쓰기 표절 대응과 교육적 활용 전략, 국어교육연구 82
- 박남기(2023), AI 시대의 대학 교양교육 패러다임 탐색,
- 박수진(2023), 기계번역 활용 한국어 쓰기 수업에서 나타난 학습자 인식과 번역문의 특징, 교양교육연구 17(3)
- 신동광(2023), 유도 쓰기 활동에서 챗GPT의 활용 방안, 영어교과교육 22(2), pp.197-217
- 오규설(2023), 생성형 인공지능이 국어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국어교육연구 82
- 오선경(2023), 대학 교양 글쓰기에서의 챗GPT 활용 사례와 학습자 인식 연구, 교양교육연구 17(3)
- 이상민(2020), L2 작문 수정에 미친 기계번역의 효과성에 대한 한국 대학생 학습자의 인식,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2(4)
- 이선화(2023), 챗GPT를 적용한 번역수업 실천 사례 연구: 학부생 번역 과제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4(3)
- 이소현(2021),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쓰기에 나타난 기계 번역 사용과 포스트 에디팅 행위 연구, 이중언어학 83
- 이주연(2023), 저작권법과 연구윤리관점에서 본 학술논문과 인공지능의 저자성-최근 ChatGPT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33(4)
- 이지영(2023), ChatGPT를 활용한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자기소개서 쓰기 사례 연구, 문화와융합 45(9)
- 이진영(2021),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글쓰기 생태계 탈인간중심적 관점을 바탕으로, 동서철학연구 102
- 이찬규(2021), 인공지능 시대 한국어교육의 방향과 전망,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이창수(2023), 챗GPT 출현 이후 기계 번역과 인간 번역 간의 번역 문체 차이 변화 연구, 번역학연구 24(3)
- 임형재·플러리시카메이(2019), 한국어교육서의 기계번역 활용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6(3)
- 임형재·자양관(2020), 한국어번역 학습자의 기계번역 결과에 대한 수정(Post Editing)능력 분석, 한국언어문화학 17(2)
- 장성민(2023.3.), 챗GPT가 바꾸어 놓은 작문교육의 미래-인공지능 시대, 작문교육의 대응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56
- 장성민(2023.5.), 생성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쓰기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가, 국어교육 181
- 정남숙(2021), AI 번역기를 활용한 활동이 대학생 영어쓰기 능력과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멀티미디어언어교육 24(1)
- 조인희(2018), 기계번역을 활용한 영어작문 수업의 효과, 영어영문학연구 60(2)
- 조인희(2021), EFL 대학 작문 수업에서 기계번역 활용의 학습 효과, 언어학연구 58
- 한철옥(2020), 인공지능 시대의 한국어 교육에서 기계번역 활용 가능성 -중한 번역을 중심으로, 한중언어학연구 69
- 황요한·이제영·신동진(2020), 온라인 기계 번역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연구 36(2)
- Emily M. Bender, Timnit Gebru, Angelina McMillan-Major & Shmargaret Shmitchell(2021), "On the Dangers of

- Stochastic Parrots: Can Language Models Be Too Big?”, FAccT '21: Proceedings of the 2021 ACM Conference on Fairnes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https://dl.acm.org/doi/10.1145/3442188.3445922>
- J. Elliott Casal & Matt Kessler(2023), “Can linguists distinguish between ChatGPT/AI and human writing?: A study of research ethics and academic publishing”, *Research Methods in Applied Linguistics Volume 2*, Issue 3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772766123000289>
- Lynne Bowker & Jairo Buitrago Ciro(2019), *Machine Translation and Global Research: Towards Improved Machine Translation Literacy in the Scholarly Community*, Emerald Publishing
- Weixin Liang et al(2023), “Can large language models provide useful feedback on research papers? A large-scale empirical analysis”, arXiv preprint arXiv 2310.01783 <https://arxiv.org/abs/2310.01783>
- <https://chat.openai.com/> GPT-4 사용

〈토론〉 “번역기와 생성형AI 시대의 유학생 글쓰기 -학부 유학생 교양 강좌를 대상으로-”에 대한 토론문

구민지(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누구나 번역기를 편하게 사용하는 시대, 누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에 유혹을 받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입니다. 특히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들의 교양교육이나 쓰기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연구자들에게 크나큰 고민거리를 안겨준 번역기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쓰기에 대해 한 단계 더 나아간 논의를 가능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번역기나 챗GPT와 같은 생성형AI를 쓰기 교육에 활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향후 교육계가 고민할 것은 ‘어떻게’에 관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와 같은 교육 현장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담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보다 풍성한 논의의 전개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학생이 한국의 대학에 재학하는 목적이 한국어 학습이 아니라 ‘학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업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혁신적인 주장을 하셨습니다. 유학생이라면 누구든 유학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언어 또는 소속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학습해야만 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언어를 숙달하지 못해 학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모두 유학생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자께서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업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양한 도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과 같은 쓰기의 상황은 대학 학업 상황의 일부일 뿐입니다. 다양한 전공 교과목에서 교수자의 설명을 듣는 상황, 동료들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 시험 답안 작성하는 상황에서도 학업상의 불이익을 받게 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시험 답안을 작성할 때 유학생에게는 번역기나 생성형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는 한국인 학생들 앞에서 유학생이 발표할 때 모국어로 발표할 것을 허용해 주고 한국인 청중은 번역기를 이용해 들어야 할까요?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의 ‘쓰기’와 교양교육에서의 ‘쓰기’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논지를 전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주 2에서 “본 연구는 ‘한국어’보다는 ‘글쓰기’에 방점이 있으므로 한국어교육에서의 쓰기 교육에 초점을 둔 논의는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기존 교양 글쓰기 교과목을 외국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전용 강좌로 분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학생들로부터 유학생을 분리하는 이유는 아마도 학생들의 한국어 구사 수준의 현격한 차이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교육의 글쓰기 강좌에서 ‘한국어 쓰기 교육’과 ‘교양 글쓰기 교육’이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일까요?

4장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한국어로 번역된 글에서 모어 화자에게 어색함이 느껴지는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

니다. 이를 번역기와 생성형 AI 시대의 유학생 글쓰기에서의 교수자의 역할로 이해하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교양교육에서의 글쓰기 교육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교수자의 역할일까요? 아울러 외국인 전용 교과목으로서의 글쓰기 강좌의 교육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필자:
-표현 교육 내용과 평가의 변화-

김지연(명지대학교)

INK 제36차 추계 학술대회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필자:
-표현 교육 내용과 평가의 변화-

소속: 명지대학교 / 이름 : 김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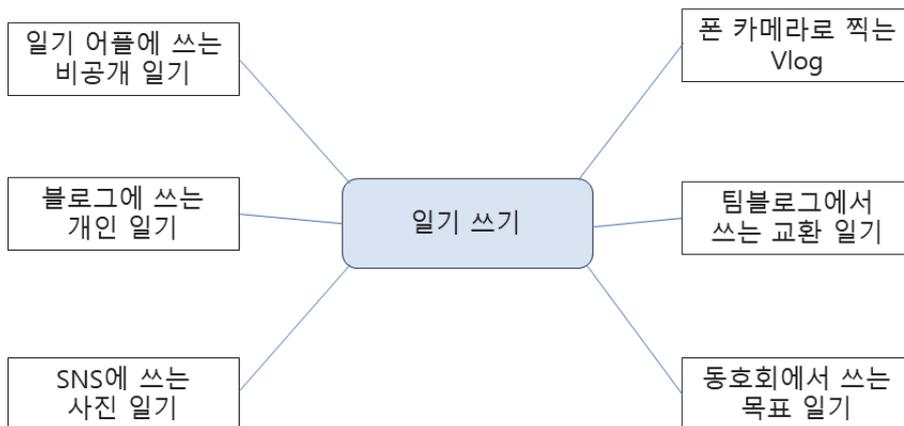


국제한국어문화학회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 환경

- 비선형적인 글쓰기
 - 연속적이고 선형적으로 쓰던 이전의 글쓰기와 달리, 하이퍼링크로 끝없이 여러 방향으로 연결됨.
- 복합양식적인 글쓰기
 - 단일양식에 가까웠던 이전의 글쓰기와 달리, 동영상과 음성, 음향, 이미지 등이 문자와 결합되어 의미를 전달함.
 - 텍스트에 활용되는 여러 상징체계들을 어떻게 결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상호소통이 강화된 글쓰기
 - 필자와 독자가 동시간대에 존재하기 힘들었던 이전과는 달리, 온라인을 통한 글쓰기는 글을 쓰고 나서 바로 독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음.

• 일기 쓰기의 예



2. AI와 디지털 글쓰기

- Chat GPT의 등장: AI 활용 글쓰기와 저자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
 - AI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가(어떤 지시를 하는가)에 대한 중요성 강조. 저자의 의도가 어느 지점에 들어가야 하는가, 어디에 들어 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저자성(author ship)의 변화: 필자가 스스로를 글쓰기 주체로 인식, 인정하고 있는가.
 - 온전히 혼자 쓰는 필자가 아닌 '도움을 받아 쓰는' 상황에서 저자성은 어떤 식으로 형성,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3. 디지털 시대의 표현 교육

- 표현 교육이란?
 - 이해 영역(듣기, 읽기)에 상대되는 영역
 - 필자의 생각, 감정 등을 텍스트화 시키는 작업
 -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복합양식적 기호로 변환하는 능력이 필요
- 말하기와 쓰기, 그리고 매체 영역
 - 말하기(구어), 쓰기(문어) 그리고 매체(복합양식)의 경계가 모호해짐.
 - '보다 경향성이 높은' 영역에 교육과정 목표를 배치
 - 텍스트 생산의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
- 그리고 2022 교육과정에서의 표현 교육

3. 2022 교육과정의 표현 영역-매체

- [2국06-02] 일상의 경험과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다.
- [4국06-02] 매체를 활용하여 간단한 발표 자료를 만든다.
- [4국06-03] 매체 소통 윤리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공유한다.
- [6국01-05] 자료를 선별하여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한다.
- [6국03-04] 독자와 매체를 고려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표현하며 글을 쓴다.
- [6국06-03] 적합한 양식과 수용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복합양식 매체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한다.
- [9국03-07]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며 글을 쓴다.
- [9국06-03] 복합양식성을 고려하여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한다.
- [9국06-04] 매체 소통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수용자의 반응을 고려하며 매체 자료의 제작 과정을 성찰한다.
- [10공국1-06-02] 소통 맥락과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목적의 매체 자료를 제작한다.

6

4. 교육과정 관련 논의 사항

- ‘매체 활용’의 범위는?
 - 교실 상황에서 다룰 수 있는 매체의 범위의 한계 존재
 - 교육적으로 전이 가능성이 높은 매체, 플랫폼을 선별이 필요
 - 현재는 PPT, 영상제작, 블로그/게시판, SNS 메신저 등이 활용
 - AI 글쓰기를 ‘매체 활용’으로 볼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

7

- '복합양식성'의 범위는?

- 문자 텍스트 이외에도 이미지와 영상, 음향 등
- 기존 글쓰기 영역과 어떤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수행과 평가에 있어서 더 정교한 논의가 이뤄져야 함.
- 이미지를 AI로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연습이 필요

8

- 빅데이터와 AI를 글쓰기 영역에서?

- AI를 통한 글쓰기 도구가 생겨나면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침
- 디지털 원주민 역시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보기 힘들.
- 자신의 글쓰기 데이터 수집이 필요(AI도 데이터가 있어야 생성이 가능)
- 좋은 글을 알아보고 이를 선별, 수정해 내는 능력이 더욱 더 중요
- 쓰기 교육/매체 교육에서 소통 맥락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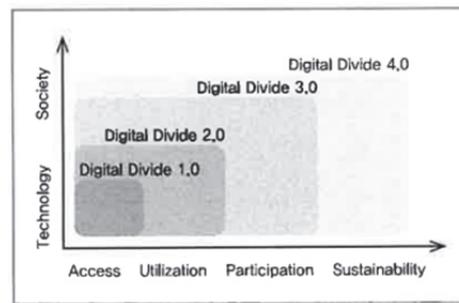
5. 디지털 표현 교육과 평가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 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

- 디지털 격차 1.0~4.0

접근(1.0) > 활용(2.0) > 참여(3.0)
> 지속가능성(4.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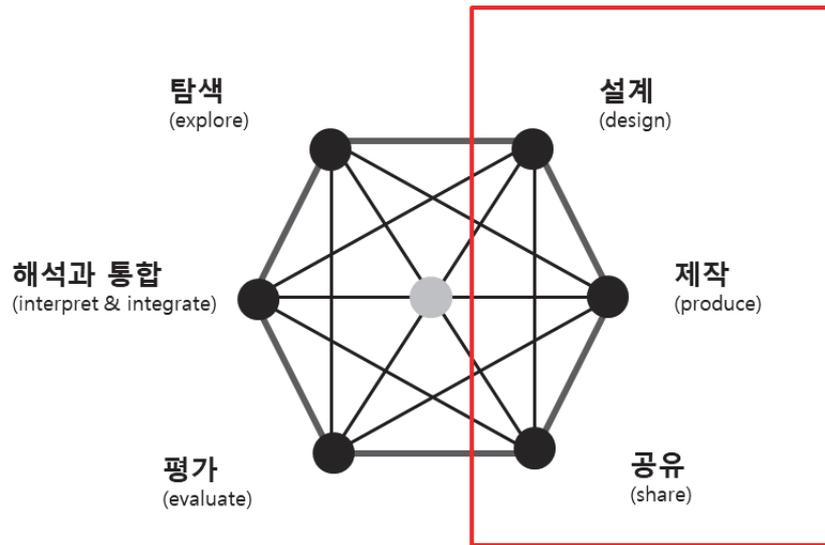
- 디지털 리터러시의 사전 진단 필요

디지털 네이티브의 경우, 아날로그 세대나 이주민 세대보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요인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나타난다.

- 디지털 매체 관련 경험, 디지털 매체 환경, 디지털 기기의 소유 여부, 디지털 매체에 대한 부모의 인식, 지역 및 소득 수준 차이 등

11

디지털 리터러시의 인지적 영역 평가 도구 개념 모형 (김종윤 외, 2018)



평가 요소: 설계, 제작, 공유

- 설계
 - '수사적 맥락 파악하기', '배양하기와 창안하기', '조직하기'
 - '수사적 맥락 파악하기'와 '배양하기와 창안하기'는 텍스트의 내용 생성 관련, '조직하기'는 텍스트의 내용 구조화 관련
- 제작
 - '배치하기', '형상화하기', '편집하기'
 - '배치하기'와 '형상화하기'는 텍스트의 초고를 만들어내는 과정 관련, '편집하기'는 텍스트 수정 과정과 관련
- 공유
 - '전파하기', '반응하기'

적용

결론 및 논의

- 글쓰기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표현 영역의 교육에도 '필요한 능력'에 대한 변화가 생겨남.
- AI 등장은 글쓰기가 오롯이 '혼자' 하는 수행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음.
- 교육과정에 매체 영역이 신설되면서 학교 교육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표현 영역 역시 '디지털 리터러시'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평가 역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학교에서 온라인 소통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토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필자:
-표현 교육 내용과 평가의 변화-”에 대한 토론문

김은호(서울사이버대학교)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 환경을 제시하고 표현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PPT 형식의 발표문을 받은 관계로, 연구 전체의 맥락과 목표는 발표를 들은 후에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발표 자료에서 제시하신 내용에서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2번 슬라이드에서 제시하신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 환경에 대한 배경 설명(비선형적 글쓰기, 복합 양식적 글쓰기, 상호소통이 강화된 글쓰기)은 이미 수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온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AI 등을 언급하신 것과 관련하여 본 연구를 기획, 진행하게 되신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주요 연구 목표로 삼으신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2. 14번 슬라이드의 '적용'은 무엇에 대한 무엇의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발표에서 설명해 주실 것으로 예상하나 한국어 표현 교육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마지막 슬라이드(15번)에서 아래와 같은 기술을 해주셨습니다.

- “교육과정에 매체 영역이 신설되면서 학교 교육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 “표현 영역 역시 ‘디지털 리터러시’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평가 역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 번째 기술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에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연구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술과 관련해서는 “표현 영역”이라 함은 한국어 교육에서의 표현 영역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평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기술하셨는데 변화 방향에 대한 연구자님의 의견이 있으신지요?

4. 마지막으로, 15번 슬라이드에서

“학교에서 온라인 소통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온라인 소통 맥락이라 함은 2번 슬라이드에서 언급하신 '상호소통이 강화된 글쓰기'와 연결지어 생각하면 될지요? 그렇다면, 온라인 소통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그 예가 될 수 있을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귀한 연구에 이해가 부족하여 오해가 있다면 토론자의 잘못입니다. 이상의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보적 학술 담론 텍스트의 역량 기반 평가 기초 연구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요소 쟁점을 중심으로-

주지영(경희대학교) · 한윤정(남서울대학교) · 김태형(경희대학교)

INK 제36차 추계 학술대회

초보적 학술 담론 텍스트의 역량 기반 평가 기초 연구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요소 쟁점을 중심으로-

소속 : 경희대	/	이름 : 주지영
남서울대	/	한윤정
경희대	/	김태형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문제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 2.1. 학술 담론 텍스트의 역량 기반 평가
 - 2.2. 학술 담론 텍스트와 디지털 리터러시
3. 역량 기반 평가의 실제
 - 3.1. 학술 담론 텍스트의 역량 기반 평가 루브릭 검토
 - 3.2. 국내외 학생 대상 평가의 실제
4.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요소 쟁점 논의
5. 결론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용어] 학술 담론 텍스트(김성숙, 2011:21)

난이도가 가장 높은 학위논문에서부터 소논문, 보고서, 서술형 시험 답안 등의 유형이 있다. 해당 연구에서 '글쓰기' 수업의 직접 쓰기 답안을 가장 난이도가 낮은 '초보적 학술 담론 텍스트'로 규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심화 글쓰기 수업의 기말 과제로 제출하는 텍스트(학술 에세이)를 '초보적 학술 담론 텍스트'로 규정한다.

교양
필수

기초 학술적 글쓰기 교과목

심화 학술적 글쓰기 교과목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초보적 학술 담론 텍스트를 '역량 기반 평가 루브릭'을 활용한 평가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 기초연구이다. '역량'은 최근 대학 교육에서 기반으로 삼는 것으로, 이재영·김지영(2020:1704)에서는 글쓰기 역량에 대한 사회적 필요의 증가를 언급하였다. 글쓰기 과목에서 산출한 학술 담론 텍스트가 '수행' 중심의 역량 기반으로 평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선행연구에서 루브릭 초안을 개발하였다.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또한 글쓰기 과목의 평가 루브릭에는 '문식성' 개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순영·김주환(2014:137)은 '대학 생활과 사회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문식성(literacy)'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 대학 글쓰기 분야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제시하였다. 이 '문식성'은 읽고 쓰는 능력에 초점을 둔 초기 문식성 개념에서부터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나 미디어 리터러시, 더 나아가 뉴미디어 리터러시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적용된다.
- 아무리 뛰어난 주제, 구성, 내용을 갖춘 글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산출물을 적절한 형태로 제작해 내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면 필자는 학술적 글쓰기 분야 문식성의 한 부분이 비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량 기반 평가를 진행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가 실질적으로 교육 과정, 커리큘럼뿐 아니라 평가에도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외국인 유학생'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6

1. 서론

1.2. 연구 문제 및 방법

- 첫째, 초보적 학술 담론 텍스트 평가를 위한 역량 기반 루브릭 초안을 활용한 예비 채점 결과 채점자간 점수의 일치도는 어떠한가? ➡ 예비 채점 및 질적 분석
- 둘째, 개발된 루브릭을 실제 수업에서 활용하여 평가할 때 타당도,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가? ➡ 기초 통계 및 질적 분석
- 셋째, 한국인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 평가 결과는 어떠하며,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가? ➡ 기술 통계 및 차이 검증
- 넷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평가가 얼마나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루브릭 활용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 ➡ 질적 고찰

7

2. 이론적 배경

2.1. 학술 담론 텍스트의 역량 기반 평가

이광우 외(2008:142-143)
고등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역량



2. 이론적 배경

2.1. 학술 담론 텍스트의 역량 기반 평가

K대 6대 핵심 역량



2. 이론적 배경

2.1. 학술 담론 텍스트의 역량 기반 평가

핵심 역량과 학습 목표의 연계

핵심 역량	핵심 역량 정의	거시적 학습 목표
비판 지성	타당한 근거나 기준을 토대로 현상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판적·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음
학문 탐구	전문 지식을 깊이 습득하고 최신 전문 지식을 탐구·연마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적 텍스트를 수집하고 이해하며 재정의·재조직화할 수 있음 학술적 텍스트 생산에 필요한 디지털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음
의사소통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해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 상황과 규범에 따라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며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음
창의 융합	학문 경계를 넘나들며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낼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산출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문제의식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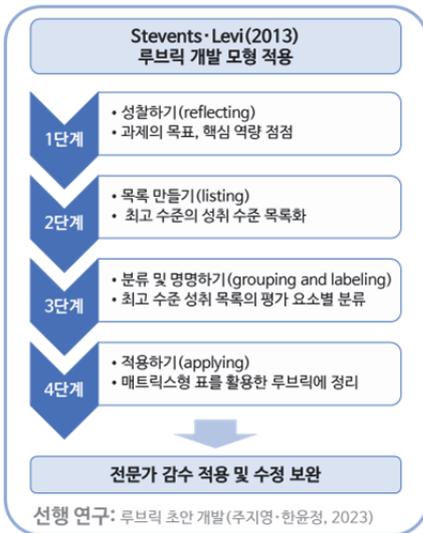
2. 이론적 배경

2.2. 학술 담론 텍스트와 디지털 리터러시

- (지면 관계상 생략)

3. 역량 기반 평가의 실제

3.1. 학술 담론 텍스트의 역량 기반 평가 루브릭 검토



➔ 예비 채점 1
3개의 텍스트(한국인 필자), 4명의 채점자
(루브릭 활용 평정)

➔ 예비 채점 2
4개의 텍스트(한국인/외국인 필자), 2명의 채점자
(루브릭 활용 평정+근거 질적 기술)

※ 예비 채점자는 모두 글쓰기 수업 교수자로, 박사학위자 또는 글쓰기 수업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구성함.

3. 역량 기반 평가의 실제

3.1. 학술 담론 텍스트의 역량 기반 평가 루브릭 검토

<K대학교 심화 글쓰기 교과목 개요>

- 최종 목표: 학술에세이 한 편 완성

[참고] 학술에세이- 논문이 요구하는 최소 원칙을 지키되 필자의 주관적 사유와 개성이 드러나는 학문적 성격의 글로, 전문성과 대중성의 균형 추구

- 과제: '위기와 전환'이라는 대주제하에서 세부 주제를 정하여 A4 7쪽 정도의 분량으로 완성

• 평가:

변인	작문평가유형
평가자	교사평가, 동료평가
사용매체	지면첨삭평가, 대면첨삭평가, 인터넷게시판활용평가
평가범위(방식)	총괄평가, 분석적평가
평가개입시기	과정중심평가, 결과중심평가
평가내용	사고, 조직, 표현등의단계에따른평가
평가결과제시방식	직접적(직설적)평가결과제시방식, 간접적(은유적)평가결과제시방식

※ K대학교 심화 글쓰기 교과목 평가 유형에 굵게 밑줄로 표시함.

3. 역량 기반 평가의 실제

3.1. 학술 담론 텍스트의 역량 기반 평가 루브릭 검토

영역	세부 요소	핵심 역량(세부 역량)	평가 척도
1. 주제 및 내용	문제의식	창의 융합(문제 설정 능력)	'발전/능숙/우수'의 3단계 (1/2/3으로 코딩)
	문제 해결	창의 융합(문제 설정 능력)	
	추론/사고	비판 지성(비판적 사고력)	
	근거/세부 내용	비판 지성(비판적 사고력)	
	학술성	학문 탐구(전문 지식 탐구 능력)	
독자 고려	의사소통(의사 전달력)		
2. 구조	도입부	비판 지성(텍스트 구성력)	
	결론부	비판 지성(텍스트 구성력)	
	소주제 배열	비판 지성(텍스트 구성력)	
	구조적 균형	비판 지성(텍스트 구성력)	
3. 문체	제목 및 소제목	비판 지성(텍스트 구성력)	
	어조	의사소통(의사 전달력)	
4. 문장	독자와의 상호 작용	의사소통(의사 전달력)	
	독창적인 표현	의사소통(독창적 표현력)	
5. 어휘	문장 구조의 완결성	의사소통(언어 구사력)	
	문장 유형의 다양성	의사소통(언어 구사력)	
6. 어문 규범	문장 간 연결성	의사소통(언어 구사력)	
	어휘의 적확성	의사소통(언어 구사력)	
7. 문서 편집	어휘의 다양성	의사소통(언어 구사력)	
	어휘의 학술성	의사소통(전문 지식 탐구 능력)	
6. 어문 규범	문법	의사소통(규범 적용력)	
	맞춤법	의사소통(규범 적용력)	
7. 문서 편집	인용 및 참고문헌	의사소통(규범 적용력)	
	글꼴 및 글자 크기	학문 탐구(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텍스트 편집	학문 탐구(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시각화	학문 탐구(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3. 역량 기반 평가의 실제

3.1. 학술 담론 텍스트의 역량 기반 평가 루브릭 검토

루브릭 초안 성취 수준 기술 내용 (일부)	1. 주제와 내용				
	세부 요소	핵심역량(세부역량)	발전단계	능숙단계	우수단계
문제의식	창의 융합 (문제 설정 능력)	주제에 문제의식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거나, 너무 일반적이거나 편협해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어려움	주제에 필자의 관점이 반영된 문제의식이 대체로 잘 나타나고 논의의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음	독자에게 필자의 관점이 반영된 문제의식이 대체로 잘 나타나고 논의의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는 명료하고 탁월한 문제의식이 나타남	독자에게 인식의 전환이나 확장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명료하고 탁월한 문제의식이 나타남
문제 해결	창의 융합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미비하거나 제시된 주장의 설득력이 낮음	문제 상황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해결방안 또는 대안적 관점을 하는 편임	문제 상황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 필자의 고유한 통찰력이 돋보임	문제 상황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 필자의 고유한 통찰력이 돋보임
추론/사고	비판 지성 (비판적 사고력)	추론 및 사고에 논리적 경합성과 합리성이 부족해 주제의 타당성을 저해함	전반적으로 주제가 논리적인 추론과 합리적인 사고에 기반하여 전개되는 편임	논리적이고 독창적인 추론과 고차원적인 사고로 주제를 강력하게 전달함	논리적이고 독창적인 추론과 고차원적인 사고로 주제를 강력하게 전달함
근거/세부 내용	비판 지성 (비판적 사고력)	주제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세부 내용이 빈약하며 구체적이지 않음	주제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고 이해를 돕는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반론에 대비한 근거를 포함해 주제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근거가 매끄럽게 통합되고 세부 내용이 인상적으로 제시됨	반론에 대비한 근거를 포함해 주제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근거가 매끄럽게 통합되고 세부 내용이 인상적으로 제시됨
학술성	학문 탐구 (전문 지식 탐구 능력)	주제가 학술적 성격을 띠지 않거나 학술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용이 전개됨	주제가 학술적 성격을 띠며 대체로 관련 학술 분야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개됨	주제의 학술적 배경과 입각점이 명확하고 전개 과정에 일관되게 학술성이 나타나며 필요에 따라 다학문적 관점을 취하기도 함	주제의 학술적 배경과 입각점이 명확하고 전개 과정에 일관되게 학술성이 나타나며 필요에 따라 다학문적 관점을 취하기도 함
독자 고려	의사소통 (의사 전달력)	주제 선정과 내용 구성에서 목표 독자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음	주제 선정과 내용 구성에서 목표 독자를 고려하여 대체로 적절한 수준의 서술이 이루어지는 편임	주제 선정과 내용 구성에서 독자가 관련 내용을 다각도로 탐색할 수 있도록 고려함	주제 선정과 내용 구성에서 독자가 관련 내용을 다각도로 탐색할 수 있도록 고려함

3. 역량 기반 평가의 실제

3.1. 학술 담론 텍스트의 역량 기반 평가 루브릭 검토



예비 채점 1

3개의 텍스트(한국인 필자), 4명의 채점자

채점자별 평균	텍스트1	텍스트2	텍스트3	평균
채점자A	1.81	2.23	1.27	1.77
채점자B	2.42	2.81	1.35	2.19
채점자C	1.81	1.62	1.50	1.64
채점자D	2.62	2.12	1.65	2.13
평균	2.17	2.20	1.44	

- 채점자 A, C는 다소 엄격한 경향성이 나타났는데, 특히 채점자 C의 경우 잘 쓴 글에서 더 엄격하게 평가했다.
- 채점자 A, B는 텍스트 2에, 채점자 C, D는 텍스트 1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16

* Excel 활용

3. 역량 기반 평가의 실제

3.1. 학술 담론 텍스트의 역량 기반 평가 루브릭 검토



예비 채점 1

3개의 텍스트(한국인 필자), 4명의 채점자

영역별 결과	평균	백분율	순위
1. 주제 및 내용	2.00	66.67	1
2. 구조	1.95	65.00	3
3. 문체	1.83	61.11	6
4. 문장	1.89	62.96	5
5. 어휘	1.94	64.81	4
6. 어문 규범	2.00	66.67	1
7. 문서 편집	1.83	61.11	6

- 예비 채점 결과 주로 1영역과 6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고, 3영역과 7영역에서 낮게 나왔다.
- 주제나 내용면에서는 잘 썼더라도 문체나 문장, 편집 등의 형식적 영역에 소홀히 하거나 오류가 많다면 해당 영역들의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7

* Excel 활용

3. 역량 기반 평가의 실제

3.1. 학술 담론 텍스트의 역량 기반 평가 루브릭 검토

예비 채점 1
3개의 텍스트(한국인 필자), 4명의 채점자

영역	세부 요소	핵심 역량(세부 역량)	텍스트1				텍스트2			
			채점자A	채점자B	채점자C	채점자D	채점자A	채점자B	채점자C	채점자D
1. 주제 및 내용	문제 해결	창의 융합(문제 설정 능력)	2	3	1	3				
	추론/사고	비판 지성(비판적 사고력)	2	2	1	3				
2. 구조	구조적 균형	비판 지성(텍스트 구성력)	2	1	1	3	2	3	1	3
	제목 및 소제목	비판 지성(텍스트 구성력)	2	3	1	2	2	3	1	3
3. 문체	어조	의사소통(의사 전달력)					2	3	1	1
	독창적인 표현	의사소통(독창적 표현력)					2	3	1	2
4. 문장	문장 유형의 다양성	의사소통(언어 구사력)	1	3	2	2	3	3	1	2
	문장 간 연결성	의사소통(언어 구사력)	2	3	1	3				
5. 어휘	어휘의 적확성	의사소통(언어 구사력)					3	3	1	1
	어휘의 다양성	의사소통(언어 구사력)	1	3	2	3				
	어휘의 학술성	의사소통(전문 지식 탐구 능력)					2	3	1	2
6. 어문규범	인용 및 참고문헌	의사소통(규범 적용력)	1	2	1	3				

- 세부 요소별로 두 단계 이상 차이가 나는 항목을 모으면 위와 같다. 텍스트 1과 2에서 나타났으며 **잘 쓴 글에서 채점자 간 의견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채점자 C와 채점자 B, D 간의 의견 차가 큰 편이다.

3. 역량 기반 평가의 실제

3.1. 학술 담론 텍스트의 역량 기반 평가 루브릭 검토

예비 채점 1
3개의 텍스트(한국인 필자), 4명의 채점자

영역	세부 요소	핵심 역량(세부 역량)	텍스트1				텍스트3			
			채점자A	채점자B	채점자C	채점자D	채점자A	채점자B	채점자C	채점자D
1. 주제 및 내용	문제의식	창의 융합(문제 설정 능력)					2	2	2	2
2. 구조	결론부	비판 지성(텍스트 구성력)					1	1	1	1
5. 어휘	어휘의 다양성	의사소통(언어 구사력)					1	1	1	1
7. 문서 편집	텍스트 편집	학문 탐구(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2	2	2	2				
	시각화	학문 탐구(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1	1	1	1

- 3개의 텍스트 중 가장 낮은 점수가 나온 텍스트 3(제일 못 쓴 글)에서 채점자간 완전 일치 항목이 가장 많이 나왔다.
- '7. 문서 편집'의 경우 평가 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항목 중 하나인데, 그중 '시각화'가 모든 요소 중 가장 평균 점수가 낮게 나온 항목이다.

3. 역량 기반 평가의 실제

3.1. 학술 담론 텍스트의 역량 기반 평가 루브릭 검토

예비 채점 2
4개의 텍스트(한국인의 글 3개/외국인의 글 1개), 2명의 채점자

채점자별 평균	텍스트4	텍스트5	텍스트6	텍스트7
	한국인			외국인
채점자E	2.19	2.88	1.73	2.62
채점자F	1.69	2.35	1.23	1.77
평균 차	0.5	0.5	0.5	0.8

- 채점자 E에 비해 F가 다소 엄격한 경향성이 나타났는데,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텍스트 평가에서 점수 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3. 역량 기반 평가의 실제

3.1. 학술 담론 텍스트의 역량 기반 평가 루브릭 검토

예비 채점 2
4개의 텍스트(한국인의 글 3개/외국인의 글 1개), 2명의 채점자

영역	세부 요소	핵심 역량(세부 역량)	텍스트4		텍스트6		텍스트7	
			채점자E	채점자F	채점자E	채점자F	채점자E	채점자F
1. 주제 및 내용	학술성	학문 탐구(전문 지식 탐구 능력)					3	1
2. 구조	소주제 배열	비판 지성(텍스트 구성력)	3	1			3	1
	구조적 균형	비판 지성(텍스트 구성력)					3	1
3. 문체	독창적인 표현	의사소통(독창적 표현력)			3	1	3	1
5. 어휘	어휘의 다양성	의사소통(언어 구사력)			3	1		
6. 어문 규범	인용 및 참고문헌	의사소통(규범 적용력)	3	1			3	1
	텍스트 편집	학문 탐구(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3	1				
7. 문서 편집	시각화	학문 탐구(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3	1		

- 세부 요소별로 두 단계 이상 차이가 나는 항목을 모으면 위와 같다. 외국인 유학생의 글인 텍스트7에서 5개 항목이나 큰 차이를 보여 국내 학생의 글과 유학생의 글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없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3. 역량 기반 평가의 실제

3.1. 학술 담론 텍스트의 역량 기반 평가 루브릭 검토

예비 채점 2
4개의 텍스트(한국인의 글 3개/외국인의 글 1개), 2명의 채점자

<텍스트7(베트남 음식의 위생적인 문제 및 해결 방안)- 평가 근거 기술>

영역	채점자E(평균: 2.62)	채점자F(평균: 1.77)
1. 주제 및 내용	2.67 본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주목하여 통계에 의거한 해석을 시도한 글. 베트남 당국의 정책과 실제 시장 상황, 한국의 위생 기준 등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근거를 조사·활용한 것 역시 글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일조함.	1.67 문제의식이 명료하게 나타나고, 논리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음. 세부 내용과 근거 자료도 대체로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 편임. 그러나 해결 방안 부분에서는 대략적인 방향성만 언급할 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서술되지 않아 아쉬움. 논리적 추론에 기반하여 내용이 전개되고 있기는 하나, 학술적 배경이나 입각점은 찾아보기 어려움.
2. 구조	3.00 본론의 구성이 현황-원인 분석-해결 방안으로 완결성 있게 구성되었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임. 다만 결론부가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분량과 내용이 아쉽다는 단점이 있으며, 본문도 조금 더 자세히 서술되었다면 더 나은 글이 되었으리라 생각함.	1.60 소주제 배열 및 구조적 균형 측면에서는 '발전' 수준으로 평가했음. 내용 전개와 균형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전혀 체계적이지 않다고 보지는 않지만, 반드시 수정할 것을 권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임. 3, 4, 5장은 하나의 장으로 편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3, 4장은 하나의 소주제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임.

3. 역량 기반 평가의 실제

3.1. 학술 담론 텍스트의 역량 기반 평가 루브릭 검토

예비 채점 2
4개의 텍스트(한국인의 글 3개/외국인의 글 1개), 2명의 채점자

<텍스트7(베트남 음식의 위생적인 문제 및 해결 방안)- 평가 근거 기술>

영역	채점자E(평균: 2.62)	채점자F(평균: 1.77)
3. 문체	2.33 여러 국가의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합된 문장은 독창적인 동시에 적절한 어조였다고 판단됨.	1.67 대체로 학문적 상황에 어울리는 어조를 사용하고 있음. 간혹 일상적 구어체에 가까운 어조가 보이기도 하나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수준임. 개성적 표현은 찾아보기 어려움.
4. 문장	2.67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문장이 종종 보이며 연결성이 미흡함.	1.67 문장이 구조적으로 완결성을 지니지 않은 경우가 꽤 있음.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고, 문장 간 연결도 잘 되고 있는 편임. 사실 외국인 학생의 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수'로 평가해도 좋다고 봄. 하지만 내국인 학생들과 동등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능숙' 또는 '발전' 단계로 평가하였음.
5. 어휘	2.67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어의 비중이 높은 편임.	2.00 어휘 수준은 전반적으로 학술에세이의 성격에 부합하는 수준을 구사하고 있음. '문장' 부분의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학생들 간 상대 평가를 한다면 '우수'로 볼 수도 있다고 봄.

3. 역량 기반 평가의 실제

3.1. 학술 담론 텍스트의 역량 기반 평가 루브릭 검토



예비 채점 2

4개의 텍스트(한국인의 글 3개/외국인의 글 1개), 2명의 채점자

<텍스트7(베트남 음식의 위생적인 문제 및 해결 방안)- 평가 근거 기술>

영역	채점자E(평균: 2.62)	채점자F(평균: 1.77)
6. 어문 규범	2.33 문법과 맞춤법에서 큰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인용 및 참고문헌 표기도 적절했습니다.	1.33 의미상 자연스럽지 않은 조사를 사용한다든가 주어에 적절하게 호응하지 않는 술어를 사용하는 등 문법적 오류가 종종 발견됨. 철자법 및 띄어쓰기 역시 오류가 존재하나 대체로 올바르게 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임. 인용 및 참고문헌의 경우 참고문헌의 대부분을 하이퍼링크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 인용한 내용에 대한 주석을 기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발전' 단계로 평가함.
7. 문서 편집	2.33 텍스트 편집이 보기에 좋지 않고,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기 했으나 중구난방한 모습을 보입니다.	2.67 텍스트와 그림의 배열이나 단락 설정 등 전반적인 편집 면에서는 더 개선할 수 있는 요소들이 보이나,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음. 특히 직접 그래프를 제작하고 가시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시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음.

3. 역량 기반 평가의 실제

3.1. 학술 담론 텍스트의 역량 기반 평가 루브릭 검토



예비 채점 2

4개의 텍스트(한국인의 글 3개/외국인의 글 1개), 2명의 채점자

<텍스트7(베트남 음식의 위생적인 문제 및 해결 방안)- 평가 근거 기술>

- 평가 근거 기술에 따르면 두 채점자 간 '발전/능숙/우수' 3단계 평정의 주관적 기준에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기술상에서 더 부정적으로 언급한 상황에서도 채점자E가 F보다 점수가 훨씬 높은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 채점자F의 '외국인임을 고려하면', '외국인 간 상대평가를 한다면'과 같은 언급을 고려하면, 채점자F는 국내 학생을 고려한 공평한 평가에 초점을 맞춘 반면 채점자E는 외국인 학생 분반임을 고려한 평가를 수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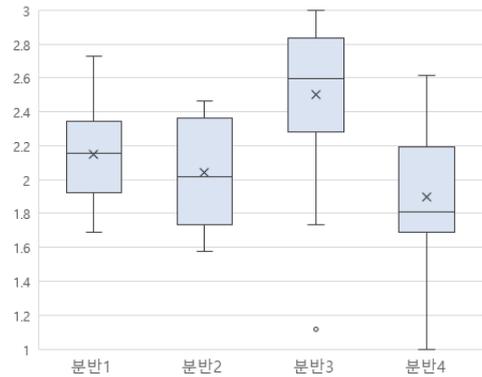
역량 기반 평가 루브릭을 활용해 외국인 학생의 텍스트를 평가하는 경우 국내 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 역량 기반 평가의 실제

3.2. 국내외 학생 대상 평가의 실제

<K대학교 심화 글쓰기 교과목 기말 과제 루브릭 활용 평가 실행>

	채점자F 평가		채점자E 평가	
	분반1	분반2	분반3	분반4
학생 국적	한국인(19명)	한국인(20명)	한국인(20명)	외국인(21명)
평균	2.15	2.04	2.50	1.90
표준편차	0.26	0.32	0.47	0.41



- 분반3이 평균이 가장 높고 표준편차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상자수염그림에서 보면 가장 낮은 점수(1.12)를 받은 학생의 수치를 제외하면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외국인 분반인 분반4는 최솟값 1.00점부터 최댓값 2.62까지 매우 다양한 점수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Excel 활용

3. 역량 기반 평가의 실제

3.2. 국내외 학생 대상 평가의 실제

<K대학교 심화 글쓰기 교과목 기말 과제 루브릭 활용 평가 실행>

영역별 결과	평균	백분율	순위
1. 주제 및 내용	2.14	71.33	3
2. 구조	2.21	73.67	1
3. 문체	2.13	71.00	4
4. 문장	2.21	73.67	1
5. 어휘	2.13	71.00	4
6. 어문 규범	2.11	70.33	6
7. 문서 편집	2.03	67.67	7

- 영역별로는 2영역과 4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고, 7영역이 가장 낮게 나왔다.
- 예비 채점과 마찬가지로 7영역이 낮아, 주제나 내용면에서는 잘 썼더라도 형식적 영역에 소홀히 하거나 오류가 많아 그 부분의 성취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Excel 활용

4.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요소 쟁점 논의

<7. 문서 편집' 항목의 한국인-외국인 학생 간 점수 차이 검증>

-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7. 문서 편집' 항목을 대상으로 한국인 59명과 외국인 21명의 점수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 방법으로 검증해 보았다.

한국인 (59명) - 기술통계 분석:

- 평균 (Mean): 1.9941
- 중앙값 (Median): 2.00
-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 0.4975
- Shapiro-Wilk 검정 p-value: 0.004 (정규성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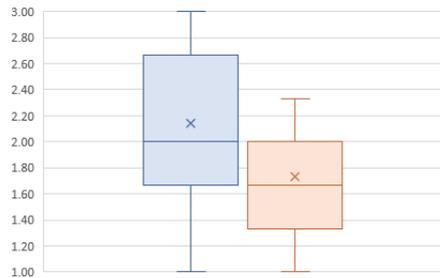
외국인 (21명) - 기술통계 분석:

- 평균 (Mean): 1.5810
- 중앙값 (Median): 1.67
-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 0.4482
- Shapiro-Wilk 검정 p-value: 0.001 (정규성X)

두 집단 간의 비모수 차이 검증 (Mann-Whitney U 검정):

Mann-Whitney U 검정 p-value: 0.000085 (P<0.05)

-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 통계분석 ChatGPT / 차트 Excel 활용

4.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요소 쟁점 논의

<질적 검증>

7. 문서 편집				
세부 요소	핵심역량(세부역량)	발전 단계	능숙 단계	우수 단계
글꼴 및 글자 크기	학문 탐구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글꼴과 글자 크기가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게 설정되어 있거나 일관성이 없음	대체로 글꼴과 글자 크기가 내용을 알아보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일관성 있게 사용되는 편임	글꼴과 글자 크기가 상황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변화를 주어 가독성을 높임
텍스트 편집	학문 탐구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텍스트 편집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활용함	다양한 텍스트 편집 기능을 활용하여 구조와 내용을 적절히 표현하는 편임	다양한 텍스트 편집 기능을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구조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집중도를 높임
시각화	학문 탐구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글의 내용상 시각화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거나 판단이 미숙함	대체로 글의 내용을 시각화할 필요가 있는지 적절히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표, 그래프,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는 편임	글의 내용을 시각화할 필요가 있는지 적절히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다양한 시각화 도구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글의 완성도를 높임

4.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요소 쟁점 논의

<질적 분석>2분반 K25: 능숙-발전-능숙

정보화 시대에 따른 디지털 가짜뉴스 문제의 심각화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

0. 목차

1) 서론 - 가짜뉴스 그리고 디지털 가짜뉴스

2) 본론 1 - 디지털 가짜뉴스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

본론 2 - 디지털 가짜뉴스에 대한 해결책

3) 결론

4) 참고문헌

지고 있다. 아래 그림은 2년에 걸쳐 기존 뉴스와 디지털 뉴스의 사용량을 비교한 것이다.



본문 디지털 뉴스는 우리에게 더욱이 되는 편이 존재한다.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단순 검색만으로도 많은 양의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등 기존보다 뉴스를 보기에 편리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을 악용하여 만들어진 디지털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여지한다. 다음 부분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본론 - 디지털 가짜뉴스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

디지털 가짜뉴스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배경이 무엇일까? 먼저 디지털 뉴스의 파급효과와 관련이 있다. 앞서 제시한 그래프에 따르면 기존 형식의 뉴스보다 인터넷 뉴스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주제가 뉴스를 형성하고 보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악용해 허위정보를 그럴듯한 뉴스 형식으로 포장해 보도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기존의 뉴스 생산 주체들만 이 생산할 수 있었던 뉴스 기사나 뉴스 영상도 형식만 빌려 가짜뉴스로 편집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8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 형식으로 제공된 가짜뉴스의 정보를 신뢰하는 정도가 약 26%, 모바일 메시지 형식으로 제공된 가짜뉴스의 경우는 약 15%로, 실제 신문 형식에 가깝게 포장할수록 더 신뢰도가 큰 경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인터넷 포털에서 가짜뉴스는 형식을 모방하면서 자극적이고 왜곡된 제목을 이용하여 차별화하고 조회수를 높

1)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2)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립연구부, 일반국민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미디어이슈, 2017.3.29.<3월 3호>)

4. 참고문헌

고성준 기자, "가짜뉴스, 세계는 왜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했는가?", 시민기자협회 뉴스포럼1, 2019.01.13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306>

오재욱,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립연구부원, 일반국민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미디어이슈, 2017.3.29.<3월 3호>)

IFLA, "가짜뉴스 가려 내는 방법"
https://www.ifla.org/wp-content/uploads/2019/05/assets/faife/images/how_to_spot_fake_news_korean.pdf

이은정 기자, "50대 86%가 모바일로 뉴스 이용"-신뢰도는 전통매체가 높아, 연합뉴스, 2022.01.17
<https://www.yonhapnews.co.kr/view/AKR2022011714100005>

IBK 기업은행, "내가 찾던 정보가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 '필터 버블' 효과"
<https://blog.ibk.co.kr/2561>

4.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요소 쟁점 논의

<질적 분석>4분반 F19(외국인): 발전-발전-발전

소셜미디어(social media)와 심리건강 사이의 관계 연구

<목 차>

- 1. 요약
- 2. 서론
 - 2.1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 2.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 3. 소셜 미디어와 정신건강 변화에 대한 데이터 분석 (단계 1, 단계 2, 단계 3)
- 4. 결론

1. 요약: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보급 범위가 점점 넓어짐에 따라 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사용 시간이 또 점차 증가한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고 외부와 교류, 연결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공유한다. 소셜미디어는 오늘날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미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미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된다. 이만큼 편리함은 이전 소셜미디어가 없었던 시절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종부과 다양한 생활 해야 동시에 점점 많은 사람이 심리 상태 불균형의 문제를 겪고있다.

2. 서론 :
2.1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은 twitter, Wechat, Instagram, Facebook 등,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오늘날 소셜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많은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했으며 우리는 외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만 의존하여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완료하고 관계를 구축하며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어떤 활동도 자신도 모르게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상상의 실현을 위해 소셜 미디어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추측을 실험으로 검증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의 구성 요소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참고 자료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생각한다. 예를 들면 소셜 미디어는 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

정보는 사실이 아닌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종종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영향을 인식하고 소셜 미디어의 사용을 더 잘 관리하려는 조처를 해야 한다. 어떻게 소셜 미디어를 절제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자원을 가지고 동시에 정신 건강에 과도한 영향을 피한 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
1.<ASSOCIATION BETWEEN SOCIAL MEDIA USE AND DEPRESSION AMONG U.S.
Liu Yi et.,Depress Anxiety,2016 Apr.© 2016 Wiley Periodicals, Inc.
2.<Facebook Use Predicts Declines in Subjective Well-Being in Young Adults>
Published: August 14, 2013 | Copyright: © 2013 Kross et al.
3.<Impact of Social Media on Self-Esteem>
Jan, Muqaddas and Soomro, Sanobia and Ahmad, Nawaz, Impact

5. 결론

<시사점>

- 역량 기반 평가 루브릭을 활용해 평가한 결과 전체적으로 채점자의 주관이 반영 될 수밖에 없어 적절한 채점자 훈련과 채점 워크숍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역량 기반 평가 루브릭 활용 평가 결과 데이터를 대량 수집하고 학생, 채점자 대 상 유용성과 효과성,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루브릭을 개선하고 긍정적 환류 효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5. 결론

<시사점>

- ‘루브릭’은 가르치는 내용(content)과 성과(outcomes)를 모두 밝히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일환으로 보면,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은 동일한 심화 글쓰기 교과목에서 비슷한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루브릭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설정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만 ‘평가’에 초점을 두고 보았을 때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가 척도의 성취 수준 기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동일 텍스트를 가지고 두 채점자(채점자E,F)가 교차 채점한 후 다국면 Rasch 모형을 활용해 평정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6. 어문 규범				
세부 요소	핵심역량(세부역량)	발전 단계	능숙 단계	우수 단계
문법	의사소통 (규범 적용력)	문법적 오류가 자주 발견되어 이해를 방해하거나 독자의 집중도를 저하함	대체로 문법을 올바르게 구사하여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이 드문 편임	문법적 오류를 발견할 수 없으며 문법 구사의 수준이 뛰어나 독자의 이해도 향상에 기여함
맞춤법	의사소통 (규범 적용력)	맞춤법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해도와 신뢰도를 저하함	맞춤법이 대체로 올바르게 되어 있어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이 드문 편임	맞춤법을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구사하고 있어 수정할 부분이 거의 없음
인용 및 참고문헌	의사소통 (규범 적용력)	인용 및 참고문헌에 대한 정보가 부실하고 완전한 형식을 갖추어 표기하지 않음	인용 및 참고문헌 정보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형식을 잘 갖추어 오류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 편임	인용 및 참고문헌 정보가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거의 완벽함

참고문헌

김성숙(2011). 학문 목적 기초 한국어 쓰기 능력 평가 척도 개발과 타당성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광우·민용성·전제철·김미영·김혜진(2008).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정비전 연구(I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31-01.

이순영·김주환(2014). 대학 글쓰기 교육과 핵심역량에 대한 교수자들의 인식 연구. *작문연구* 20, 135-163.

이재영·김지영(2020). 대학핵심역량에 기반한 「글쓰기역량측정도구」 개발 방향 설계, *인문사회*21 11(5), 1703-1717.

주지영·한윤정(2023). 초보적 학술 담론 텍스트의 역량 기반 평가 루브릭 개발 연구, 미발표 논문.

〈토론〉 “초보적 학술 담론 텍스트의 역량 기반 평가 기초 연구 -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요소 쟁점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박영옥(건양사이버대학교)

이 연구는 학부생 심화 글쓰기 수업의 기말 과제물을 “초보적 학술 담론 텍스트”로 규정하고 학습자의 다면적 역량을 기반으로 실제 평가에 적용하여 쓰기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채점 기준은 스티븐스-리바이(Stevens-Levi, 2013)가 제시한 루브릭(rubric, 서술된 평가 채점표) 개발 모형을 적용하여 루브릭 초안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구성 요소를 첫째, 주제 및 내용, 둘째, 구조, 셋째, 문체, 넷째, 문장, 다섯째, 어휘, 여섯째, 어문 규범, 일곱째, 문서 편집 모두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영역인 주제 및 내용의 성취 수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발전-능숙-우수 3 단계로 구분하고 점수화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점자 간 일치도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쓰기 평가의 구체적 루브릭의 예시를 제시하고 실제적인 평가 방안을 보이고자 한 것으로 쓰기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루브릭 초안 구성 요소 7가지 중에서 주제 및 내용에 대한 세부 요소, 핵심 역량 그리고 단계별 성취 수준의 기술 내용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시된 발전-능숙-우수 이 3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고 좀 더 구체적인 기술을 한다면 학습자 입장에서는 평가 기준의 이해 그리고 보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내용 인식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채점자는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역량 기반 평가의 실제에서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쓰기 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항목 별 채점 기준의 구체적 예시가 있어도 채점자 간 편차가 심한 경우, 예를 들어 채점자 E와 채점자 F의 주관성에 대해서는 교차 채점 후 다국면 Rasch 모형을 활용해 평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요소 쟁점 논의 항목에서 세부 요소에 해당하는 핵심역량의 발전/능숙/우수 단계 세부 내용 기술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조, 문체, 문장, 어휘, 어문 규범 영역 모두 세부 역량의 기술 내용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쓰기는 필자가 일방적으로 생각과 의미를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하므로 복잡한 정신적 사고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심화 글쓰기 수업에서 평가의 측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연구하고 평가의 요소를 구분, 기술하여 쓰기 평가에 구체

적인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토론자가 잘못 이해하여 의견이나 질문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너그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